

# 젊음과 패기의 페퍼스 '유쾌한 반란' 꿈꾼다



이한비

바르가

하혜진

최가은

문슬기

구솔



광주에 열리는 프로배구 시대

## <2> 열정으로 뒀다

선수 평균 나이 21세, 젊음과 패기로 무장한 AI페퍼스가 올 시즌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

AI페퍼스에는 기존 스타 플레이어들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유망한 잠재력을 지닌 선수들이 포진해있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이 '좋은 집보다는 탄탄한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마인드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선수들을 끌어모은 결과다.

AI페퍼스 초대 주장을 맡은 레프트 이한비는 '장비'로 불릴 만큼 묵직한 스파이크와 서브가 강점이다.

이한비는 지난 2015-2016시즌에 흥국생명예 입단, 김연경-이재영 등의 백업으로 출전했다.

6시즌을 뛰며 83경기에 출전해 355득점, 공격

이한비 - '코트의 장비' 묵직한 스파이크와 서브가 강점  
 바르가 - 192cm 큰 키, 높은 타점·파워풀한 공격력 갖춰  
 하혜진 - 하종화 선수의 딸 ...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  
 최가은 - 블로킹 능력 뛰어난 센터 ... 페퍼스의 숨은 보석  
 문슬기 - 11년 간 실업팀에서 실력 쌓은 노련한 리베로  
 구솔 - 큰 키에 블로킹·서브 돋보이는 팀의 중심 세터

성공률은 31.25%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20-2021시즌에는 10경기에 나와 40득점, 공격 성공률 42.7%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외국인선수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라이트)는 높이와 파워를 겸비한 선수로 기대를 모은다.

헝가리 출신인 바르가는 192cm 큰 키를 활용한 높은 타점과 파워풀한 스파이크 공격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1순위로 꼽혔다.

바르가는 2017-2018시즌부터 2020-2021시

즌까지는 헝가리리그 파툼 니레지하저에서 뛰었다. 첫 해외진출이지만 다행히 바르가는 한국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이달 초 지역 고교 팀과 연습경기 때 김 감독이 "바르가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서둘러 연습경기에서 뵈었다"고 할 정도다. 바르가는 올해 목표로 "가능한 많은 경기를 이기는 것"을 꼽았다.

하혜진은 아버지인 전 배구선수 하종화의 대를 이어 코트를 누비는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

다. 하혜진은 레프트, 라이트, 센터 등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어느 상황에서든 활약할 수 있다.

하혜진은 2014-2015시즌 한국도로공사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후 실력을 인정 받아 2017년 월드그랜드챔피언스컵, 2019년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여러 차례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2020-2021시즌에는 도로공사 소속으로 22경기에 출전해 17득점, 공격 성공률 33.3%를 기록했다.

'유망주' 센터 최가은도 숨은 보석이다.

최가은은 2019-2020시즌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5순위로 IBK기업은행에 입단했으나, 두 시즌 동안 9경기에 출전해 22득점을 얻는 데 그쳤다. 기존 세터 자원이 많아 신인이 나설 자리가 없었던 탓이다.

최가은은 센터로서 역할도 막중하다. 최민지는 "찾은 무릎 부상"으로 재활 과정에 있고, 하혜진은 전문 세터 자원이 아니다. 최가은은 184cm 큰 키를 바탕으로 힘있는 블로킹을 펼쳐 팀의 중심을 잡아 줄 선수로 꼽힌다.

문슬기는 11년 동안 실업팀에서 실력을 쌓은

노련한 리베로다. 목포여상을 졸업한 뒤 양산시청, 포항시체육회, 수원시청 등에서 뛰었다.

11년 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프로 자원을 사양했지만, 실업 무대에서도 그의 활약은 돋보였다. 2019년 포항시체육회 소속으로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견인하며 리베로 상을 받았다. 수원시청으로 소속을 옮긴 올해도 팀을 한국실업배구연맹전 우승으로 이끌고 리베로 상을 수상했다.

문슬기는 올 시즌 목표로 "부상 없이 동료들에게 힘이 되는 리베로가 되고 싶다.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즐겁게 배구하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구솔 또한 세터로서는 181cm의 큰 키와 블로킹·서브가 돋보이는 선수다.

구솔은 2019-2020시즌은 KGC인삼공사에서, 2020-2021시즌 때는 양산시청에서 뛰는 등 프로·실업 무대를 오가며 경험을 쌓았다. 신인 세터 박사람이 부상으로 올 시즌 출전이 불투명해진 만큼 구솔은 이현과 함께 2명뿐인 세터 자원으로 활약을 기대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엄원상 선제골 못 지키고 ... 광주FC, 5연패 늪

### 강원FC에 1-2 역전패

광주FC가 엄원상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5연패에 빠졌다.

광주는 17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K리그2 2021 28라운드 원정 순연 경기에서 1-2 역전패를 기록했다. 5연패에 빠진 최하위 광주는 강원과 8점 차로 멀어졌다.

엄원상이 선제골을 장식했지만 강원 김영빈이 1골 1도움의 활약으로 역전극을 이끌며 '천장' 광주를 울렸다.

전반 초반 광주가 몇 차례 위기를 넘겼다.

전반 9분 김대우가 롱패스를 받아 슈팅을 날렸고, 광주 골키퍼 윤보상이 공을 그대로 잡아냈다.

전반 14분에는 박상혁의 매서운 슈팅이 광주 골대로 향했지만 이번에도 윤보상이 공을 막아내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전반 22분 엄원상이 광주의 공격을 깨었다.

오른쪽 측면으로 질주한 엄원상이 슈팅까지 시도해 코너킥 상황을 만들었다.

문전 경합이 전개됐고, 이민기가 뒤로 흐른 공을 잡아 다시 강원 진영으로 보냈다. 수비수 사이에 있던 엄원상 앞으로 공이 떨어졌다. 오른쪽으로 공을 잡은 엄원상이 왼발로 골대를 가르면서 선제골을 장식했다.

강원도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전반 29분 강원 마티아가 프리킥 상황에서 때린 공이 수비벽을 넘어 광주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골키퍼 윤보상이 공을 쳐내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전반 추가 시간 마지막 위기를 넘지 못했다.

프리킥 상황에서 김대원이 길게 띄운 공이 바운드 되면서 광주 진영을 벗어나는 것 같았지만 강원 김영빈이 공을 살렸다. 이어 김동현이 오른발로 민 공이 그대로 광주 골망을 흔들었다.

1-1에서 시작된 후반전, 후반 3분 오른쪽 측면에서 띄운 헤이스의 크로스를 강원 김영빈이 쳐냈고, 뒤에 있던 이순민에게 공이 향했다. 이어 이순



광주FC의 엄원상(왼쪽)이 17일 강원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22분 선제골을 기록한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민이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이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후반 12분 광주가 이번에도 프리킥 상황을 막지 못했다.

강원 김대원이 좌측에서 프리킥을 띄웠고, 이정협이 헤더로 연결했다. 골키퍼 윤보상이 공을 쳐냈지만, 흐른 공을 잡은 김영빈이 오른발로 광주 골대를 갈았다.

후반 15분 광주 김호영 감독이 교체 카드로 분위기를 반전에 나섰다.

헤이스와 김주공을 빼고 엄지성과 김중우를 투입했고, 바로 이어 광주의 공격이 전개됐다. 이순민이 다시 한번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고, 아쉽

게 골키퍼 이범수의 품에 안겼다.

이후에도 광주는 엄지성 등을 투입해 강원 골대에 나섰지만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후반 45분 두현석이 엄원상의 힐패스를 받아 문전까지 전진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이후 추가시간 4분을 살리지 못한 광주는 1-2 역전패를 기록했다.

광주 김호영 감독은 "어려운 강원 원정에서 선제 득점으로 기세를 잡았던 건 좋았지만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 부재가 아쉬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음 경기 승리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드래곤즈, 안방서 4강 확정

### K리그2, 부산에 2-0 승리

### 남은 2경기 대전과 3위 경쟁

전남드래곤즈가 안방에서 4강행을 확정했다.

전남이 17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산아이파크와의 K리그2 2021 34라운드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발로텔리와 이종호의 골로 승점 52점을 만든 전남은 5위 부산을 승점 11점 차로 따돌리고 2021시즌 4강을 확정했다.

이날 1위팀도 결정됐다.

김천상무가 부천FC와의 34라운드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승점 67점을 채운 김천은 두 경기를 남겨두고 1위를 확정, 내년 시즌 1부리그로 복귀하게 됐다.

전반 9분 발로텔리가 '해결사'가 됐다.

프리킥 상황에서 김현욱이 수비벽 앞에 있던 발로텔리를 향해 공을 띄웠다. 발로텔리를 지난 공이 상대 수비 맞고 왼쪽으로 튀었고, 발로텔리가 공을 잡아 왼발로 시원한 슈팅을 날렸다.

이내 골망이 흔들리면서 전남의 선제골과 함께 발로텔리의 시즌 11호골이 기록됐다.

전반 22분에는 공을 몰고 부산 진영으로 질주하던 장성재가 박호영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비디오판독 결과 페널티킥은 선언되지 않았다.

발로텔리는 후반 41분 다시 한번 수비수 사이에서 위력적인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공은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전에서는 이종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후반 32분 역습상황에서 이종호가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 골대를 뚫지 못했다. 아쉬움도 잠시, 2분 뒤 이종호가 이번에는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장성재의 크로스가 부산 골키퍼 안준수를 지나 골대 오른쪽에 있던 이종호에게 향했다. 이종호가 머리로 살짝 방향을 바꿔 골망을 흔들었다.

이와 함께 앞서 안양과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페

널티킥 골을 기록했던 이종호의 3경기 연속 골이 기록됐다.

그리고 골키퍼 김다솔이 신들린 선방쇼를 펼치면서 무실점 승리를 완성했다.

후반 35분 부산 드로젝의 묵직한 중거리 슈팅이 전남 골대로 향했지만 김다솔이 이를 막아냈다.

5분 뒤에도 드로젝이 김다솔의 선방에 올랐다.

박민규의 패스가 드로젝의 머리를 맞고 전남 골대로 향했다. 골대 앞으로 나와 있던 김다솔 뒷공간으로 득점이 완성되는 것 같았지만, 김다솔이 몸을 날려 공을 쳐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김다솔이 드로젝의 중거리 슈팅을 골대 밖으로 날리면서 전남의 2-0 승리를 만들었다.

이 승리와 함께 K리그2 2021시즌 4강 싸움도 막이 내렸다. '우승팀' 김천상무와 함께 FC안양, 대전, 전남이 4강 자리를 차지했다. 전남은 이날 승리로 대전을 3점 차로 추격하면서 남은 2경기에서 3위 싸움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독일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 새 홈구장에서 구단 첫 득점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정우영(22)이 새 홈구장인 유로파-파크 경기장에서 프라이부르크 선수로는 첫 득점자로 구단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정우영은 16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에서 라이프치히와 치른 2021-2022 독일 분데스리가 8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프라이부르크가 0-1로 끌려가던 후반 19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정우영의 골은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에서 나온 프라이부르크의 1호 골이라 의미가 더 컸다. 이날 경기는 그동안 슈바르츠발트-슈타디온을 써온 프라이부르크가 새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된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의 공식 개장 경기였다.

/연합뉴스